



시간이 멈춘 우암동 189번지

서울사람이 다 된 나는 이달 초 아내와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을 다녀왔다. 부산은 나에게 제2의 고향이다. 특히 우암동 189번지 일대는 사촌기 추억(1968년말~1975년 초)이 곳곳에 뽀 났다. 1968년 2월, 고창 경복 안동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촌 꿈을 안고 낯선 항구도시 부산으로 유학을 오게 됐다. 배정중학교 입학 시험을 보던 날, 우암동에서 학교로 걸어 가다 아버지는 “우리도 택시 한번 타보자”며 택시를 세웠다. 그렇게 난생 처음 타본 택시 냄새가 지금도 아련하다. 시험을 치르고 얼마 안 돼 합격통지를 받아 사립에서 온 어린 소년의 부산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50년 세월이 흘렀다.

최근 공직생활을 마감한 나에게 이번 부산 여정은 마음 설레는 방문이었다. 첫날은 가볍게 부산 시내를 돌았다. 둘째날 아침 이른 여행의 목적지인 우암동으로 향했다. 모교인 부경고등학교(구 경남상업고등학교)를 거쳐 영두산공원을 지나 우암동으

로 들어섰다. 택시기사에게 부탁해 문현로 터리에서 배정중학교를 거쳐 장고개를 넘었다. 학창시절의 옛 모습을 떠올리며 택시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 하나도 놓칠 수 없었다. 아내에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전주교 성당 앞에서 내려 내가 살았던 기억을 더듬어 우암동 189번지를 찾아 나섰다. 시장골목을 지나 뽕집에 들러 당시 얘기를 하고 또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 마침내 ‘우암동 189번지 골목’을 찾았다. 다닥다닥 붙은 집들과 싹틔죽처럼 어지럽게 꼬인 고살길들, 40여 년 전 모습이 그대로 내 눈앞에 펼쳐졌다. 조금도 변함없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시간이 멈춘 우암동 189번지’였다. 2층집을 가리키며 동행한 아내에게 “내가 여기서 살았노라”고 말했다.

아침엔 거대한 무역선이 고통소리를 내며 부두로 향하는 모습이 시골 소년의 눈에는 신기함 그 자체였다. 일요일에는 교

육년의 추억 찾아

40년 만에 발걸음

변치 않아 반갑지만

변치 않아 가슴아려

회(당시 우암 제일교회)를 다닌 추억, 추운 겨울 찰싹떡 장수의 애절한 소리, ‘재치국 사이스’를 외치던 아내의 목소리, 가끔씩 지나가는 옛장수의 가위소리, 넘바(?) 아저씨의 낱 쉼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동향천주교회 내 한복여자 실업학교에서 귀순한 북한 용사의 안보강연, 우암제일교회의 임종은 목사님, 이종모 장로님의 설교 들던 기억들이 모두 떠올랐다. 가슴이 벅차 올랐다. 세월을 잊은 배낭 돌아 초로가 된 소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세월의 무상함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서글펐다. 우암동 189번



일러스트=김정휘

지는 급변하는 세상사에서 멀찍이 비껴 앉아 있었다. 변치 않아 반갑지만 변치 않아 가슴 아린 우암동은 우리 세대에게 있어 아픈 손가락 같은 곳이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삶이 허기질 때 가끔 우암동 189번지의 기억을 꺼내 마음을 달래곤 했다. 영화 ‘친구’에서 잠시 언급된 우암동 189번지, 그곳은 ‘시간이 정지된 곳’, ‘세상의 변화를 거부한 곳’, ‘옛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곳’임을 이번 기회에 확인했다. 당시 우암동이란 이름보다는 ‘적기 뱃머리’라는 항토색 짙은 이름을 많이 쓴 기억이 난다. 바닷가의 광명목재, 성

창기업 동명목재, 연합철강, 국제화학의 왕자표신발, 조방(조선방직), 조미료 미원, 대선소주, 국제신보(한국제신보) 등 당시에는 말이 쓰였던 단어들이다.

40년 전 추억을 뒤로하고 마지막날 중앙동, 자갈치시장, 영도다리를 지나는 영도를 일주를 끝으로 KTX에 몸을 실었다. 삶의 갈증 이 느껴질 때 반추할 추억거리를 담아 온 여행이었다. 우암동은 그런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권택상(국제청 퇴직)



제왕의 리더십

하루는 제나라 선왕이 명자에게 “나 같은 사람도 천하의 제왕이 될수 있겠소?”하며 묻자 명자가 말했다. “임금님의 신하인 호를이만 사람을 만났는데 임금님께서 종에 피를 바르기 위해 소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하니 소 대신 양의 피를 사용하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임금님이 인색하여 큰 소 대신 작은 양을 죽이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금님 내가 어찌 소 한 마리 가 아까워 양을 죽이라 했소? 그저 죽으로 끌려가는 소가 불쌍하여 그랬을 뿐이요.” “백성들의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죽여가는 것이 불쌍하다면 소와 양이 무엇이 다릅니까? 눈 앞에 보이는 소를 불쌍하다고 하셨는데 그 훌륭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 작은 양에 대해서 미치지지는 못했습니까. 제가 백 근이 되는 쇠덩어리는 들어 올릴 수 있는데 깃털 하나는 들어 올릴 수 없으며, 짐승의 털은 가려낼 수 있지만 수레에 가득 실린 재목은 가려낼 수 없다면 임금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선왕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고개를 저었다. “임금님의 사랑은 소에게는 미치지지만 백성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한 개의 깃털을 들어올릴 수 없다는 것은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며 수레의 재목을 가려낼 수 없었다는 것은 바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힘을 쓰지 않고는 천하의 제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는 것을 본 명자가 이어 말했다. “죽으로 가는 짐승을 불쌍히 여기듯 백성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 훌륭한 사람의 힘을 백성들을 위해 쓰십시오. 천하의 제왕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면 백성들이 제왕으로 받들 것입니다.” 선왕은 크게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자리에 오르면 그것이 영원한 자리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쥐고 휘두르려 한다. 처음에는 무서워 들어주겠지만 계속 들어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리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다. 베풀은 바로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신뢰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태이나 미담사실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목욕탕에선 목욕만 하세요

목욕탕에 갈때 마다 일부 물지각한 여성들이 마음을 핑계로 각종 우연일들을 남용해 이맛살을 찡푸리게 한다.

우유, 야쿠르트, 기름, 과일젤, 계란 등을 마구 몸에 바른 뒤 물에 씻어 그대로 버린다는 것이다. 우유 작은 통 하나를 완전히 정화

시키려면 수영장 하나에 가득한 5톤 가량의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목욕을 하면서 갖가지 재료들을 생각 없이 물에 흘려 보내놓고는 ‘낙동강 수질 오염 때문에 수돗물을 못 마시겠다’느니 ‘정부는 마실 물조차 관리하지 않고 뿔 하느냐’는 등 비난을 일삼는다. 오래 전부터 목욕탕에선 1회용 물품들을 팔지 않는다. 이제 목욕탕 내에서는 이런

용품들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우유나 유제품도 먹는 용도 외에 못 쓰게 해야 할 것이다. 최영지(문현동)

불필요한 서비스 음식은 사절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음식문화와 습관이 옛날처럼 그렇게 배불리 많이 먹지않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도 음식점에서는 여전히 반찬 숫자와 양이 많아 남기기 일쑤다. 때로 손님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서비스로 만두나 다른 음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보쌈이나 족발을 주문하면 막국수나 비빔 국수, 콜라 등이 따라 나온다. 피자를 시키면 콜라가 꼭 따라온다. 서비스는 고마우나 대부분 배가 불러 먹지도 못하고 버리기 일쑤다.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 식당에서는 손님이 원하

마을도서관, 자원봉사자 활용해 휴일도 개관

■ ‘평생학습 선진지’ 호주를 다녀와서

평생학습도시 사례 연구를 위해 이종철 남구정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 및 실무자 27명과 함께 지난 달 호주를 다녀왔다. 평생학습의 개념이 국내에 도입된 지는 10년 남짓, 남구는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일행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성인 교육기관인 앨버튼의 ALA(Adult Learning Australia). 호주 국민들이 쉽게 편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목적으로 1960년에 설립됐다. 직장파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참여가 매우 높고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기업체와 연계한 직업훈련 교육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었다. 앨버튼 외곽의 풋스크레이(Footscray)는 지역 주민들과 다문화 가정,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문화 교육을 특화해 시설 활용도가 높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을 일부 분담해 수강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시드니의 국

립기술전문대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도 인상적이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직 후 당장 실무에 투입 가능하도록 훈련시키는 이른바 실전형 기술학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2년제 직업훈련학교로 호주 전역에 캠퍼스만 130여 곳을 두고,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유학’을 온다고 한다. 대학 졸업자는 물론이고 재직자들도 승진을 위해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평생교육이 자리를 잡았다. 호주의 낮은 청년실업률이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어 ‘신학협력’의 결정판인 셈이다.

ALA와 TAFE가 국가적,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평생교육시스템이라 한다던, 당장 우리 남구에 접목 가능한 부분이 호주의 평범한 주민센터와 마을도서관이라 하였다. 특히 주민센터는 우리의 남구문화원이나 복지관과 개념과 느낌이 비슷해 진수했다.

일행이 방문한 시각은 토요일 오후. 단종짜리 마을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슴에 앵커가 그려진 빨

간 티셔츠를 입은 할머니 두 분이 우리를 반겼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다. 도서관 관리는 이들 퇴직 사서나 퇴직 교사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돌아가면서 근무해 주말과 휴일에도 개관하고 있었다. 주민센터 역시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일 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종철 구정장은 “주민이나 휴일에 부득이 문을 닫아야 하는 국내 기관들이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도서관과 주민센터의 건립부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라이온스클럽의 후원과 개인 기부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꽤나 흥미로웠다.

선진국답게 호주의 평생학습은 전체적으로 주민 자율에 기반해 학습 네트워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또 다양한 평생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은 교육청과 대학 그리고 일선 기관의 협력으로 매끄러워 보였다. 하지만 ‘각본’에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 남구를 포함해 국내 평생학습 시스템이 앞서는 점도 적지 않아 보였다. 일방적 도입보다는 절충과 벤치마킹의 조화가 필요해 보인다.

노상수(남구청 평생교육과)

신나라 물대리				
산행을 떠나요				
〈2014. 1.〉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산산악회	1/11(일)	간월도 치안산	010-9879-0702
	대오산악회	1/11(일)	간월도 치안산	010-2559-2086
	청암산악회	1/14(수)	여수 향암안 금오산	010-6778-3192
	오천산악회	1/21(수)	울진 백암산	010-4655-4370
	용산산악회	1/25(일)	간월도 태백산	010-3586-6161
용호동	용호산악회	1/25(일)	충북 괴산 태백산	010-2593-0361
	여명산악회	1/4(일)	전북 무주 남악유산	010-3554-4392
	화정산악회	1/4(일)	소백산	010-3575-3448
	용산산악회	1/11(일)	간월도 태백산	011-488-3307
	금강산악회	1/4(일)	간월도 치안산	010-3865-9051
용두동	기(산)악회	1/11(일)	충북 영동 민주지산	010-6266-8525
	북산산악회	1/4(일)	간월도 천선 화백산	010-7223-2277
	미천산악회	1/11(일)	미천	010-8008-2067
	함양산악회	1/11(일)	남해 금사	010-8324-3424
	여남산악회	1/11(일)	철곡군 구미 유화산	010-4553-6615
용담동	문현산악회	1/25(일)	포항 오재산	016-554-8892
	용마산악회	1/11(일)	개별특지	010-3924-0177
	녹색산악회	1/25(일)	간월도 선지현	010-7343-3426
	굴포천산악회	1/18(일)	고성 무이산	010-8287-1192
	오일산악회	1/4(일)	고성 비변산	010-3557-2847
우암동	한솔산악회	1/11(일)	포항 비화산	010-8524-9224
	우암산악회	1/25(일)	충북 괴산 사암이메기	010-6578-0488
	문산산악회	1/11(일)	관주 무등산	051-631-9001
	문현산악회	1/4(일)	간월도 대관령 노산행	011-9544-3434
	문현산악회	1/11(일)	간월도 태백산	010-3178-3065
문현동	원북산악회	1/18(일)	관주 무등산	010-4564-7769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안내

□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구청에서 산정합니다.

□ 개별주택가격 공시일정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개별 주택가격 조정 공시
2014. 10. 27. ~2015. 2. 13.	2015. 3. 11. ~3. 31.	2015. 4. 30.	2015. 4. 30. ~6. 1.	2015. 6. 30.

남구청 세무1과 과표평가담당 ☎(051)607-4921~4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14. 12. 22.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만석빌딩	대연동	경비 및 주차관리	1명	14. 12. 19~12. 31	월급 119만원	051-625-0473
겐츠베이어커리	용호동	빵 제조	1명	14. 12. 19~채용시	월급 120만원	051-610-2034
오케이 아이티에스	우암동	영업지원	00명	14. 12. 19~채용시	월급 200만원	051-894-0005
미화산업	대연동	경리	1명	14. 12. 22~15. 1. 9	월급 140만원	051-469-0900
폴	문현동	웹 프로그래머	2명	14. 12. 20~채용시	회사 내규	051-924-0404
새라새요양병원	감만동	영양사	1명	14. 12. 18~채용시	연봉 1,740만원	051-628-6005
서한통상	문현동	청원경찰	1명	14. 12. 18~12. 31	월급 126만원	051-466-0809
투그림 시스템즈	대연동	지바개발자	2명	14. 12. 19~15. 1. 30	회사내규	070-4201-3588
누리세움	문현동	경리	1명	14. 12. 17~12. 31	연봉 1,400만원	051-902-2311
더뷰	용호동	일식요리사, 출서빙 등	0명	14. 12. 17~12. 31	회사내규	051-984-0001
가나병원	용담동	급식조리원	1명	14. 12. 19~채용시	월급 150만원	051-624-6666
대호테크	문현동	경리사무	1명	14. 12. 19~15. 1. 16	월급 150만원	051-647-8856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2015년 1월 남구 문화캘린더

공연명	공연일자	공연시간	공연장소/문의처
우리마을 풍경화전시회	12/31(수)~2015. 02/01(일)	09:00~18:00	감만문화회관 745-7249
[전시회]부산박물관 소장 유물100점 珍寶	12/11(목)~2015. 02/15(일)	홈페이지참고	부산시립박물관 610-7111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진다	12/23(목)~2015. 01/25(일)	홈페이지참고	경성대학교 예노극장 663-5988
[전시회] 2014 부산 원로작가—오늘저	12/18(목)~12/26(금)	10:00~18:00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631-1377
[공연] 힐링밴드 직장인밴드공연	12/27(토)	16: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011-878-9190
[공연]문충학교 fun fun 뮤지컬	12/29(월)	09:00~13: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010-9312-5505
[공연] 덕혜빌리 컴백콘서트	2015. 01/03(토)	15:00~17: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441-3097
[한국조형예술교 뮤지컬] <그리스>	12/30(화)	14:00~16:00 19:00~21: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620-2700
[부산시립극단] <화가 이중섭>길 떠나는 가족	12/23(화)~12/27(토)	평일 19:30 토·일 15:00~17:00	부산문화관중극장 607-3151
윤형민쇼	12/28(일)	15:00, 17:00, 19:00	윤형민쇼극장 610-1003
[토요상설무대]	2015. 1/3, 1/10, 1/17, 1/24	16:00	부산문화회관소극장 607-6056
[문화기있는날] 큐레이터와 역사나들이	12/31(수)	17:30~18:40	부산시립박물관 610-7146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장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